

[결혼칼럼] 결혼 비전, 결혼 환상

공진수 목사 / 2002

'결혼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신앙이 있건 없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기적이고 조건적이며 일방적인 결혼조건 즉 에로스(Eros)적인 사랑과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사실 배우자의 선택은 대단히 이기적인 선택이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여 선택하기 때문이다.

여러 결혼예배학교 세미나를 다니며, 청년들과 워크숍을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신보다는 배우자가 인격이나 영성 면에서 우월한 사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청년들은 낭만적 사랑을 꿈꾸며 에로스적 선택을 기대한다. 그런 배우자를 기다리며, 상대에게 그러한 요구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많은 교회의 청년들 - 특히 자매들 - 은 결혼 적령기를 이미 넘겼으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짝지어 주실 배우자를 위해 믿음 좋게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과 결혼에 대해 배우려고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많은 청년들이나 부부들은 결혼의 시작과 과정의 초행길을 '사랑'이라는 느낌이나 본능에 의존하려 한다. 그러나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느낌이나 본능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신기루 - 집단 무의식, 부모와 사회의 무의식적인 암시, 영화나 소설에 대한 이상향-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을 하고 나면, 대개 남녀 모두 실망한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기대와 부풀음을 안고 힘겹게 들어간 대학 1년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학의 현실 앞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다.

결혼을 처음 경험하면서 겪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의 절망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화려한 결혼식 준비에 몰두했던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현실을 앞에 놓고, 서로를 무참히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미 뒤로 주저앉을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현실을 드디어 바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환상들은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면서도 반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나는 이 환상들 뒤에 반드시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영적인 방해가 있다고 확신한다.

결혼의 신화들

1) 나는 결혼상대자를 어느 날 우연히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많은 기독교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우자를 태초부터 운명적으로 결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애타게 기다린다. 그러나 이 생각에 따르면 결혼 후에 오는 모든 갈등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된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면, 결혼 생활에는 아픔이나 고통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다툼이나 고통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배우자 선택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배우자는 당시 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왜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가? 당시 나의 상태가 그 대상을 절실히 원했기 때문이다. 잠재된 무의식에 의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는다. 문제는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2) 결혼은 일방적이다

커플들에 대한 냉소적 유머가 있다.

첫째, 지나가는 커플 남자가 못생기고 여자가 예쁘다면 사람들은 남자가 실력이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남자가 멋지고 잘생긴데 반해 여자가 못생겼다면 여자가 돈이 많은 거라고 생각한다. 셋째, 남자와 여자 모두 못생기고 매력적이지 못하다면 그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 편은 승리하고 다른 쪽은 패한다.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사고방식, 이것이 '결혼은 일방적' 신화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모든 커플은 일반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결혼은 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아니다. 결혼은 둘 다 이기거나 한 사람의 패배는 곧 두 사람의 패배를 의미한다. 한 사람의 불행은 곧 가정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결혼한 부부는 운명공동체이다.

3) 결코 배우자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노총각, 노처녀들이 늘어가고 있다. 후회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결국 사람을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된다.

후회없는 선택에 대한 욕심과 맥을 같이 한다. 이기적 욕심, 욕망 충족의 도구, 너무 큰 기대는 상대적으로 결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불완전했다면 결혼 후의 삶 역시 완벽할 수 없다.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결혼은 우리를 파라다이스로 안내하는 출입구가 아니다. 결혼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며 결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다. 잘 준비된 사람일수록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인격과 영성이 잘 경비된 사람일 수록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품어주고 넉넉히 안아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